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 재 창 최 인 화 박 미 진[†]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를 번안하여 실시하였고 미결정을 측정하는 진로결정척도와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척도 중 수행불안에서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미결정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척도 점수로 추출된 미결정 집단을 타 집단과 비교한 결과, 미결정집단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확신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미결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미결정에 대해 의사결정 혼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고, 인지적 재구성의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상담의 방법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진로미결정, 진로상담

이재창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최인화, 박미진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임.

[†] 교신저자 : 박 미 진, (121-79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전화 : 02-320-1356 E-mail : meejini@hanmail.net

Niles와 Hartung(2000)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진로이론으로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 Lent 등의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Sampson 등의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Brown의 가치중심모델, 포스트모더니즘 접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에서 뿐 아니라 진로이론에서도 인지적 접근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인지란 외부자극의 지각, 기억에 저장된 내용(신념, 가치, 가정, 이론, 철학 등), 외부 혹은 내적 자극의 처리(사고, 평가, 해석, 의미부여 등) 등과 같이 인간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보처리와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의미한다(권석만 등, 1998). 인지적 접근에서는 사람들의 감정 혹은 행동은 사건이나 상황자체가 아닌 그것에 대한 해석, 즉 인지(사고, 신념)에 의해 영향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진로영역에서 인지는 진로관련 정보의 처리와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Krumboltz(1994)는 사람들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신념에 따른 방식으로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만일 신념이 정확하고 건설적이라면, 신념은 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반면, 만일 신념이 부정확하며 자기-파괴적이라면, 신념은 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지가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진로의사결정과 직업선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내담자의 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Lewis & Gilhousen, 1981; Nevo, 1987). 연구결과에 의하면,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기능적 사고는 무력감과 우울을 야기하며 진로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만든다(Dowd, 1995). Corbishley와 Yost(1989)

에 의하면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의사결정력을 저해하고, 흥미발견을 어렵게 하며, 면접과 같은 진로준비활동을 방해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고들은 무력감, 확신부족,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과 같은 정서를 야기하는 등 내담자의 말과 감정, 행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Sampson, Peterson, Lenz와 Reardon(1992)은 이러한 인지를 진로상의 역기능적 인지로 개념화하고 진로사고 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이하 CTI)를 개발하였다. 진로사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 이하 CIP)이론과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Peterson, Sampson과 Reardon(1991)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를 진로발달에 적용한 것이다(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인지적 정보처리에서 진로문제 해결 및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처리영역은 피라미드형태로 개념화될 수 있다.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에는 자기정보와 직업정보로 구성된 정보영역이 있고, 이러한 두 정보영역 위에 의사결정기술 영역이 위치한다. 이 영역에는 개인이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처리기술이 포함된다. Peterson, Sampson, 및 Reardon(1991)은 진로문제 해결에서 CASVE로 알려진 순차적 인지과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CASVE에 포함되는 전체적 과정기술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수신, 부호화, 의문전달), 평가(Analysis: 상황적 틀에서의 문제 확인 및 정렬), 종합(Synthesis: 행동 코스로 공식화), 가치(Valuing: 성공 및 실패가능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행동 결정), 실행(Execution: 계획실천으로 위한 전략실행)과 같다(Zunker, 2001).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에 있는 실행 과정 영역에 도달하는데 이 영역에 초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초인지는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인지적 전략의 선택과 지속을 조절한다. 피라미드 영역들은 상하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인지는 모든 영역의 내용과 기능에 영향을 주고 의사결정기술은 정보영역의 내용과 기능에 영향을 준다(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 중 특히 역기능적 사고과정, 역기능적 도식, 자동적인 체계적 사고오류의 영향,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미결정의 일반적인 영향요소인 불안과 우울 등에 관해 축적된 인지치료의 연구들이 진로사고검사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인지는 과거 경험에서 나온 도식형태의 태도나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의 역기능적 도식 사용은 체계적 사고에서 정보처리의 결합이나 오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체계적 사고상의 오류는 자동적으로 된다. 자동적인 된 개인의 부정적 사고는 반증할 수 있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럴 듯하게 인식되어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진로사고검사를 활용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미결정과 같은 진로결정 관련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관련이 있었지만(Osborn, 1999), 정서관련 변인들 즉 역기능적 사고와 우울, 상태·특성 불안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아 정서적 변인보다는 인지-매개와 관련된 변인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Dodge, 2001).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 범죄자 중에서는 범죄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 높

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었고, 물질남용의 성인들도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학습 무능력 대학생의 경우는 하위척도 중 외적갈등 척도에서만 높은 점수를 보여 학습 무능력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지각과 의미있는 타인들의 지각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결정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체계내 갈등도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과 진로선택 실행을 저해한다는 가정을 지지한다(Dodge, 2001). 이렇게 역기능적 사고와 진로선택에 관한 논문들은 인지적 과정이 개인의 진로결정의 질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및 기법이 될 수 있다. 진로사고검사는 현재의 진로의사결정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좀더 나은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다. 역기능적 진로 사고를 감소시키면 개인은 진로탐색과 문제해결,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Gelatt(1962)는 진로지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결정은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 의해서 평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은 진로상담의 중요한 과정이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가 된다(이재창,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사고검사(CTI)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알아보고, 이것이 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인 측면을 파악하여, 진로상담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와 4년제 대학 3개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184명, 여학생이 257명이었으며 고등학생이 248명, 대학생이 193명이었다. 고등학생은 3학년(167명)을 제외한 1학년(167명)과 2학년(81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생은 1학년이 91명, 2학년이 35명, 3학년이 44명, 4학년이 23명이었다.

연구도구

진로사고 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이하 CTI)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및 Saunders (1996)에 의해 개발된 진로사고 검사(CTI)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손상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하도록 개발된 검사이다. CTI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CIP)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를 이론적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CTI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전체 응답 중 무응답이 5개 이상이면 무효 처리하며 본 연구에서도 무응답이 5개 이상인 사례는 제외되었다. CTI의 모든 항목은 효과적인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전반적인 역기능적 사고를 나타내는 총점과 요인분석으로 얻어진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고 자신에 대한 명확성(self-clarity)이 부족하여 자신의 흥미나 능력, 직업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3가지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의사결정 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s: 이하 DMC, 14항목):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한 척도이다(문항의 예; 내가 흥미있는 전공이나 직업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의사결정 혼란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에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며 문제에 압도당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기 어려워지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이하 CA, 10항목): 진로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한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로 이러한 불안은 미결정을 지속시키게 된다(문항의 예; 내 관심사는 늘 변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행불안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기는 등의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된다.

외적 갈등(External Conflict: 이하 EC, 5항목):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는 갈등에 관한 것으로 중요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간에 균형 조절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이다(문항의 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은 나의 전공이나 직업 선택을 더 어렵게 한다).

본 연구는 CTI 개발자와 출판사(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다. 출판사의 사용 승인은 검사의 상업적 사용불가, 번역 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이 1차 번역을 한 후 박사학위 소지자 2명(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4명(이중언어자 1명 포함)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번역한 문항을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저자인 Sampson에게 검토를 받았다. 이후 Sampson이 지적한 역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의 수정과 용어사용과 관련된 의견 조율을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CTI가 개발된 이후 CTI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Dodge, 2001; Osborn, 1999;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Wright, 2000). 본 연구의 CTI 내적 신뢰도는 전체 척도가 .95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CTI의 내적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CTI의 내적 신뢰도

	고등학생	대학생	전체
의사결정혼란	.87(.91)	.89(.94)	.88
수행불안	.81(.85)	.86(.88)	.84
외적갈등	.59(.74)	.68(.77)	.67
CTI 전체	.93(.96)	.95(.96)	.95

주. ()안은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및 Saunders(1996)의 결과임.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이하 CDS)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 등(1976)에 의해 개발되고 고향자(1992)가 변안한 진로결정 척도(CDS)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척도는 확신성 척도(Certainty Scale)와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전체는 19문항으로 되어 있다. CDS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형태의 18 문항과 자유반응식 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반응식 1 문항은 이전 문항보다 더 명확하게 진로에 대해 표현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항목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확신성 척도는 문항 1에서 2까지의 2 문항으로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한다. 반면 미결정 척도는 문항 3에서 18까지의 16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미결정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확신성 척도가 .88, 미결정 척도가 .88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결정 척도뿐 아니라 확신성 척도도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는 Osipow(1986)가 제안한 해석적 가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로결정 척도를 해석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미결정집단(표 2의 G4)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DS의 각 척도점수분포가 Osipow가 제안한 15%내외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고등학생의 경우, 확신성 최하점수 2점인 연구대상자가 28.6%), 상, 중, 하 3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Osipow(1986)가 제시한 CDS 점수에 대한 해석적 가정은 표 2와 같다.

표 2. 확신성 및 미결정 점수의 해석적 가정

		미결정 척도		
		높음(84%초과)	중간(16%-84%)	낮음(16%미만)
확 신 성 척 도	높음(84%초과)	결과의 신뢰도가 낮음(G1)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진로결정이 거의 된 상태(G3)
	중간(16%-84%)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낮음(16%미만)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이 필요(G4)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결과의 신뢰도가 낮음(G1)

결 과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의 차이 분석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와 진로결정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척도

인 수행불안에서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척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 및 하위척도, 미결정에서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확신성에서는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 분석

Osipow(1986)가 제안한대로 진로결정척도의 하

표 3.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의 차이분석

구분	성 별		t	학교급별		t	
	남자 (184명)	여자 (257명)		고등학생 (248명)	대학생 (193명)		
의사결정 혼란	.82(.54)	.75(.49)	1.520	.91(.52)	.62(.44)	6.336***	
역기능적 진로사고	수행불안	1.00(.59)	1.35(.61)	-2.583**	1.42(.60)	1.12(.57)	5.436***
	외적 갈등	.96(.53)	.94(.51)	.778	1.10(.50)	.76(.49)	7.512***
	전체	.97(.49)	.98(.45)	-.093	1.11(.45)	.81(.42)	7.240***
진로결정	확신성	2.01(.87)	2.18(.93)	-.313	2.00(.87)	2.43(.91)	-5.015***
	미결정	2.15(.58)	2.24(.58)	-1.491	2.25(.56)	2.14(.60)	2.061*

주.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집단구분

		미결정 척도		
		상 H:40점이상(34.3%) C:40점이상(31.6%)	중	하 H:32점이하(33.5%) C:28점이하(33.2%)
확 신 성 척 도	상 H:5점이상(31.8%) C:7점이상(17.6%)	G1 H:42명(16.9%) C: 7명(3.6%)	G2	G3 H:33명(13.3%) C:25명(13.0%)
	중	G2	G2 H:132명(53.2%) C:137명(71.0%)	G2
	하 H:3점이하(37.5%) C:3점이하(19.7%)	G4 H:41명(16.5%) C:24명(12.4%)	G2	G1

주. H는 고등학생, C는 대학생임.

위척도점수로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하위집단을 추출해내고 각 집단별로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4는 각 집단의 구분점수 및 해당빈도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의 진로결정척도 점수

로 진로결정수준별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별로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 및 각 하위척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미결정집단(G4)이 역기능적 진로

표 5.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별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검증

구 분	G1	G2	G3	G4	F	Scheffé
의사결정혼란	.89(.61)	.91(.38)	.34(.36)	1.41(.47)	36.628***	1=2 1≠3 1≠4 2≠3 2≠4 3≠4
수행불안	1.36(.67)	1.41(.47)	.82(.46)	2.00(.47)	33.602***	1=2 1≠3 1≠4 2≠3 2≠4 3≠4
외적갈등	1.10(.56)	1.09(.42)	.72(.42)	1.41(.51)	13.655***	1=2 1≠3 1≠4 2≠3 2≠4 3≠4
전 체	1.07(.56)	1.11(.30)	.59(.32)	1.58(.32)	46.024***	1=2 1≠3 1≠4 2≠3 2≠4 3≠4

주. ()안은 표준편차

*** $p < .001$

표 6.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별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검증

구 분	G1	G2	G3	G4	F	Scheffé
의사결정혼란	.69(.56)	.63(.38)	.11(.15)	1.00(.43)	23.506***	1=2 1≠3 1=4 2≠3 2≠4 3≠4
수행불안	1.01(.76)	1.17(.51)	.43(.32)	1.58(.41)	23.810***	1=2 1≠3 1=4 2≠3 2≠4 3≠4
외적갈등	.86(.88)	.78(.45)	.38(.32)	.98(.51)	7.538***	1=2 1≠3 1=4 2≠3 2=4 3≠4
전 체	.88(.72)	.83(.37)	.31(.18)	1.16(.34)	23.759***	1=2 1≠3 1=4 2≠3 2≠4 3≠4

주. ()안은 표준편차

*** $p < .001$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진로가 결정된 집단(G3)에 비해 미결정집단(G4)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표 5,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간의 상관분석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전체 및 하위척도)와 진

표 7.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간의 상관분석

구 분		역기능적 진로사고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전체	
전 체	확신성	-.38**	-.37**	-.23**	-.39**	
	미결정	.73**	.72**	.54**	.79**	
성 별	남자	확신성	-.22**	-.27**	-.11	-.22**
		미결정	.76**	.78**	.56**	.83**
	여자	확신성	-.50**	-.44**	-.32**	-.50**
		미결정	.73**	.67**	.53**	.76**
학교급별	고등학생	확신성	-.24**	-.23**	-.10	-.25**
		미결정	.74**	.72**	.53**	.83**
	대학생	확신성	-.48**	-.47**	-.23**	-.46**
		미결정	.75**	.72**	.55**	.78**

주. ** $p < .01$

로결정척도 중 확신성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미결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 < .01$).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간의 상관관계를 성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상관분석에서는 여학생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척도 중 확신성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 미결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척도 중 외적갈등과 진로 확신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급별로는 대학생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척도 중 확신성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 미결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척도 중 외적갈등과 진로 확신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회귀분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척도인 의사결정 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을 독립변인으로, 진로결정척도의 확신성 및 미결정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표 8은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확신성에는 의사결정 혼란이 14.3%, 수행불안이 2.2%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냈고 외적갈등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정에서는 의사결정 혼란이 53.5%, 수행불안이 8.1%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냈고 외적갈등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확

신성에는 수행불안(7.3%)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결정에는 수행불안(60.8%), 의사결정 혼란(7.5%)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확신성에는 의사결정 혼란(25.3%), 수행불안(1.2%)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결정에도 의사결정 혼란(53.1%), 수행불안(4.6%)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회귀분석 결과에는 미결정에 대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영향력은 남학생의 경우 수행불안의 영향력이 컸고 여학생의 경우 의사결정 혼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회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확신성에는 의사결정 혼란(5.6%)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결정에는 의사결정 혼란(55.1%), 수행불안(10.1%)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학생의 경우 확신성에는 의사결정 혼란(23.1%), 수행불안(2.8%), 외적갈등(2.5%)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결정에는 의사결정 혼란(55.7%), 수행불안(6.0%)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사고검사(CTI)를 실시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는 수행불안에서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일반화된 불안을 더 느끼며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회피 혹은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8. 진로미결정에 대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회귀분석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R ² ch	F	Beta	t
전체	확신성	의사결정 혼란	.143	.143	73.054***	-.378	-8.547***
		수행불안	.164	.022	43.047***	-.207	-3.365***
		외적갈등			1)		
	미결정	의사결정 혼란	.535	.535	505.116***	.731	22.475***
		수행불안	.616	.081	351.746***	.401	9.632***
		외적갈등			1)		
성별	남자	수행불안	.073	.073	14.366***	-.270	-3.790***
		확신성			1)		
		외적갈등			1)		
	여자	수행불안	.608	.608	282.538***	.780	16.809***
		미결정	.683	.075	195.126***	.400	6.543***
		외적갈등			1)		
학교급별	고등학교	의사결정 혼란	.253	.253	86.262***	-.503	-9.288***
		확신성	.265	.012	45.758***	-.157	-2.044*
		외적갈등			1)		
	대학생	의사결정 혼란	.531	.531	289.174***	.729	17.005***
		미결정	.578	.046	173.867***	.307	5.289***
		외적갈등			1)		
학교급별	고등학교	의사결정 혼란	.056	.056	14.648***	-.237	-3.827***
		확신성			1)		
		외적갈등			1)		
	대학생	의사결정 혼란	.551	.551	301.286***	.742	17.358***
		미결정	.651	.101	228.765***	.415	8.413***
		외적갈등			1)		
학교급별	고등학교	의사결정 혼란	.231	.231	57.399***	-.481	-7.576***
		확신성	.259	.028	33.202***	-.248	-2.675**
		외적갈등	.284	.025	24.951***	.231	2.553**
	대학생	의사결정 혼란	.557	.557	240.557***	.747	15.510***
		미결정	.618	.060	153.451***	.365	5.470***
		외적갈등			1)		

주. 1) 유의한 영향력 없음
 * p<.05 ** p<.01 *** p<.001

여학생들의 수행불안은 이들의 진로미결정을 야기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다. 수행불안은 인지적 정보처리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정보영역과 실행과정 영역사이의 의사결정기술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인 CASVE상에서 인지적 오류를 찾아 피라미드의 상위 영역인 실행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치료 방식의 처치가 필요할 것이다.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및 Saunders(1996)는 인지적 오류 중 부정적 자기독백(self-talk)형태가 많은 진로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수행불안을 감소시킬 인지치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자기독백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CII전체와 하위척도, 미결정에서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확신성에서는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후 대학전공 선택이라는 의사결정을 했음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진로결정에 대한 갈등과 역기능적 사고에 따른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에게 진로문제는 일정 시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진로의사결정에서 사용될 인지적 전략인 초인지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이전의 전공선택과 계속되는 학업수행, 취업준비, 부업선택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지적 정보처리과정과 이들의 초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고등학생들에게는 인지적 정보처리 피라미드의 하단영역인 자기정보와 직업정보로 구성된 정보영역에서부터 상위영역인 실행영역까지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결정척도 점수로 진로결정수준별 집단을 구분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결정집단이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미결정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확신성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고, 미결정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을수록 확신성은 낮아지고 미결정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와 대학생 집단에서는 CII전체와 하위척도에서 확신성과는 부적상관을, 미결정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남자와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외적갈등과 확신성간에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에서는 여학생과 대학생의 진로확신이 부모, 가족, 친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의 의견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통해 확신 받고자 하는 이들 집단의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른 차별적 처치를 필요로 하며 차별적 처치에는 이들에게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 생활전반에서 역기능적 사고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하고 개인 및 가족문제와 진로선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확신성 및 미결정에 역기능적 진로사고 중 의사결정혼란과 수행불안은 유의한 영향력이 있으나 외적 갈등은 영향력이 없었다. 성별 및 학교급별 회귀분석에서 확신성의 경우, 남학생은 수행불안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여학생은 의사결정혼란과 수행불안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고등학생은 의사결정혼란만이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대학생은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미결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수행불안과 의사결정혼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도 수행불안과 의사결정혼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의사결정혼란이 미결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혼란이 높으면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며 문제에 압도당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기 어려우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겪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인지적 처치가 결국 이들의 의사결정혼란을 감소시키고 진로결정을 돕는 과정과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라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하위요인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인지적 재구성 과정을 통해 감소시키면서 내담자가 진로탐색과 문제해결,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진로상담과정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교정하는 진로상담이 결국 진로미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진로사고검사(CTI)는 진로미결정 문제를 인지적 정보처리라는 배경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인지치료라는 처치방법까지 포함된 평가도구라는 점에서 그 활용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사고검사의 활용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고려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개인상담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며 집단상담에서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내담자가 가진 역기

능적 사고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의 과정에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진로사고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한 전국적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변인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권정혜, 박경애, 박재황, 오익수, 홍경자 (1998). 청소년인지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 이재창 (1988). 생활지도: 성장과 적응을 위한 접근. 서울: 문음사.
-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 Dodge, T. D. (200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of origin and selected career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Tech University.

- Dowd, E. T. (1995). Cognitive career asses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1-20.
- Gelatt, H. B. (1962).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24-28.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 Niles, S. G., & Hartung, P. J. (2000). Emerging career theories. In D. A. Luzzo (Ed.), *Career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s: An empirical guide to strategies that work* (pp. 23-4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sborn, D. S. (1999).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ed.). Columbus, OH: Marsthor Consulting and Press.
- Osipow, S. H. (1986). *The Career Decision Scale: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67-72.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unders, D.E., Peterson, G.W., Sampson, J.P. Jr., & Reardon, R.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Wright, L. K. (2000). *The effects of self-efficacy, interests, and dysfunctional thoughts on level of career decidedness, and satisfaction with occupational cho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Zunker, V. G. (2001).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원 고 접 수 일 : 2002. 3.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29
 게재 결정일 : 2002. 6. 14

Effects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Career Indecision

Jae-Chang Lee In-Hwa Choi Mee-Jin Park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career indecision. In this study, the Career Thought Inventory and the Career Decision Scale were used to measur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respectively.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441 (248 high school and 193 college) studen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commitment anxiety by sex, and i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and career indecision by their schools. Career indecision group showed the highest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areer indecision and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career certainty. Career indecision were affected by th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and future research on th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are discussed.

Key Words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areer Thought Inventory, career indecision, career counseling*